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4 ~ 3/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6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경스님	마음의숲
2	인생수업	법륜스님	휴	7	숫따니빠따 (빠알리원전번역)	일야스님	불광출판사
3	밭갈 했는가	도원스님 외 불광출판사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조계종 신행기 홍로, 영진사	모과나무
4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륜스님, 채민호	어백	9	뒤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용화
5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이일야	담앤북스	10	대방광불화엄경 80변상도	해인사	해인사출판부



퇴계 학문은 불교 선지식과 교유통해 완성

김주ыл 기자 kimj4217@hyunbul.com

‘퇴계의 학문은 서산 대사를 비롯한 불교 선지식들과의 교유를 통해 완성됐다.’

〈심우도〉 〈탄트라〉 등으로 불교문화의 정점을 보여준 백금남 작가(사진)가 새로 펴낸 소설 〈퇴계〉를 마치고 밝힌 소회다.

얼핏 보면 조선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퇴계와 스님들과의 학문 교류가 당시 송유역시대의 조선에서 가능했을까 의문이 들지만, 백 작가에 따르면 퇴계는 불교를 바탕으로 주자학서 독립된 우리만의 새 학문을 정립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그때 소설의 설정도 퇴계 선생이 서당 운영을 스님에게 맡긴 부분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픽션이다. 이 책은 명성에 비해 행적이 덜 알려진 퇴계 이항 선생의 정신세계와 일상적인 삶, 사랑 이야기 등을 드라마틱하게 담아냄으로써 위대한 사상가이자 학자였던 퇴계의 사상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살인사건을 추적해가는 추리 소설의 형식을 통해 흥미진진하고 속도감 있는 흐름 속에서 퇴계의 학문과 인생의 속살을 과감하게 보여준다.

백 작가는 이번 책을 위해 수년간의 자료 조사와 직접 발로 뛰며 취재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3년여에 걸쳐 유학을 공부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소설은 서울 마포구 인근 초마서 발견된 변사체를 울곡이 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체는 다름아닌 신선공부를 하는 ‘도착’이란 이었다.

특이한 것은 시체가 단 아래서 부처처럼 거부자를 틈 채 눈 감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임금의 명을 받고 조사에 나선 울곡은 퇴계 선생이 그 집에서 나가는 것을 봤다는 증언에 퇴계의 누명을 벗기고자 붓화 도산서당으로 찾아간다.

이 과정서 조선시대 학문의 전성기를 연 정암 조광조, 퇴계 이항, 울곡 이이의 사상이 씨줄과 날줄로 엮이며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서른네 살의 폐기만만한 울곡과 예수가 홀 살의 퇴계, 그리고 이미 팔십여 년 전에 죽은 조광조의 사상이 한 공간서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것이 이 책의 백미이다.

퇴계의 사상은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서 재조명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최고 석학들이 퇴계 사상을 신봉하고, 유럽 각지의 저명한 동양학자들이 ‘퇴계학’ 국제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퇴계1·2 백금남 지음 | 글레마 펴냄 | 각 권 1만 4천원

퇴계의 삶, 사상, 정신세계 소설로 살인사건 추적해가는 추리소설 형식 소설의 큰 줄기는 만년의 3년간 다뤄 퇴계의 사랑도 한축... 독서 미각 돋워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퇴계 선생의 업적이 점점 묻혀버리고 있다. 퇴계의 학문이 어렵고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또 퇴계의 삶을 지나치게 신격화하려는 태도 때문에 다른 사상가들에 비해 외면당하는 것이다.

백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퇴계의 궤적을 쫓아 써내려간 지난 6년여의 시간은 고행의 연속이었다”며 “이 시대에 왜 퇴계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 세상 인심이 가장 소중한 것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조출한 인격을 지켜나간 대장부의 삶, 그것이 내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라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또한 백 작가는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퇴계는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인격을 완성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식을 배우고

이를 배운대로 실천에 옮기는 인격수양에 더 치중한 이유입니다”라고 그동안 연구한 퇴계의 사상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백 작가는 퇴계의 이런 업적에 전착해 글감으로 사용했다. 140여 차례나 벼슬을 고사하고 평생 마음공부에 정진해온 참 선비, 치열하고 집요한 연구로 조선 성리학을 활짝 꽃피운 사상가, 직접 교육 사업을 일궈 수많은 인재 길러낸 실천적 철학자, 기녀 두향과 애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노학자 등등이다. 이 책에 담긴 퇴계는 대학자이기 이전에 정신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애쓴 고결한 인격자로 조명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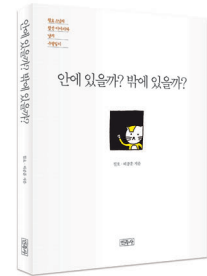
책 내용으로 들어가 좀더 소설 〈퇴계〉를 살펴보면 임금의 명을 받은 울곡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퇴계를 추적하는 추리소설 형식으로 전개된다. 소설의 큰 줄기는 퇴계의 만년 3년간을 다룬다. 그러나 퇴계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서 퇴계의 소년기, 결혼할 당시 모습, 관직 생활 하던 시기 등으로 여러 시공간을 옮겨 다니며 자연스럽게 인간 퇴계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로써 퇴계가 어떤 인물이며, 그가 평생 갈고닦은 학문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책은 총 두 권으로 돼 있다.

1권은 퇴계를 추적하는 울곡과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퇴계의 관점서 한 장씩 교차 서술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이로써 긴장감이 점점 고조돼 두 사람이 만나는 2권 앞부분서 극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2권은 살인사건과 이단학문의 도교를 매개로 폐쇄된 도가 수련원인 소격사에서 퇴계와 울곡이 각자의 사상을 피력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조선시대 학문의 전성기를 연 학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당시 지식인의 고민과 학자로서의 역할, 선비의 도량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시대에 어떤 지식인이 필요한지, 참 교육의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일깨운다.

이 소설에서는 퇴계의 사랑도 한 축을 담당해 독서의 미감을 돋운다. 퇴계는 단양군수 재임 시절 두향이라는 기녀를 만나 매화를 매개로 애뜻한 정담을 주고받으며 정분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하는 정인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교감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노학자인 퇴계와 젊은 기녀 두향의 애뜻하고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는 정사에서 외면한 인간 퇴계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줘 자못 흥미롭다.

본래 진면목, 내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월호·배중훈 지음
인족사 펴냄
1만 6500원

월호 스님은 불교계의 힐링멘토다.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전교실, 시민강원, 시민선방을 운영하는 한편 불교방송과 불교TV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tvN의 3대 종교인이 만나 솔직담백한 토크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 마이 갓’에 출연하는 등 매체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현대불교신문〉 등 교계 언론을 통해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카툰, 일러스트, 페인팅 작업을 해 온 배중훈 작가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카툰리스트다. 작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2014 어포터블 아트 페어’에 처음 참여, 한국 불교를 소재로 한 회화 작품으로 유럽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올해는 이탈리아서 열리는

배 작가는 “‘냥’은 고양이를 넘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멈추고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려는 마음과 그 수행의 과정에서도 늘 욕심과 욕망에 붙들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으로 늘 그 경계에서 갈등해야 하는 모습이 고양이 ‘냥’에게 들어 있습니다. 냥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웃고, 부끄러워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라고 밝혔다.

배 작가의 말처럼 냥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속에서 욕심과 욕망을 뛰어넘고 본성을 깨우쳐가는 고양이 ‘냥’의 수행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일기인 것이다. 하루에도 수차례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회로애락 속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려는 ‘냥’의 모습, ‘냥’의 한마디 탄식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우리와 똑같은 ‘냥’의 모습을 통해 공허한 관념이 아닌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의 세계로 다가서게 된다.

참선과 카툰의 신선한 만남 ‘눈길’ 스토리텔링 기법... 참선과 수행일기

‘2015 어포터블 아트 페어(Affordable art fair)’에서 우리의 불교문화와 정서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선(禪) 회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는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책 한권을 펴냈다. 월호 스님과 배중훈 작가의 환상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책,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는 출간 전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부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에는 ‘월호 스님의 참선 이야기와 냥의 수행일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힐링선(禪)’을 주창한 월호 스님의 유쾌한 참선 이야기와 참선을 일상의 깨달음으로 승화시킨 카툰 ‘냥의 수행일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참선과 카툰의 만남만으로도 의미와 재미를 더해 주는데,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라는 제목부터 다양한 차원의 사유와 공감증 유발 하듯 참선의 세계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있다.

총 6장으로 편집된 이 책은 일종의 참선과 같이 읽힌다. 월호 스님이 잔잔하게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하는 참선 이야기와 옛 선사들의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던 일화에 얽힌 계승 이야기 또한 매우 편안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와 읽는 것만으로도 그대로 힐링이 되는 듯하다.

월호 스님도 “무엇인가 밖에서 구한다는 것은 험벽이 있는 겁니다. 재물이든 명예든 밖에서 구한다는 것은 아직 불지견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면 굳이 험벽이면서 밖에서 구할 일이 없는 겁니다.”라며 시종일관 우리에게 본래 갖춰진 부처님 성품을 자각하도록 이끌어준다. 자기 안의 불성(佛性)에 대해 인식하기만 해도 더 이상 험벽이 지 않고 밖으로 찾아 헤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참선을 견성법(見性法)이라 하는 것도 참선이 특별한 수행법이 아니라 바로 성품을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월호 스님은 중국 선종을 꽃피우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 6조 혜능 대사의 삶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혜능 대사 개인의 천재적인 수행력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 ‘일차무식의 나무꾼도 불성을 깨달았다’, ‘무식한 나무꾼도 깨닫는데 어찌 내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하는, 모두가 평등하게 지니고 있는 불성에 대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희망, 자신감을 갖게 된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주ыл 기자

책속의 밑줄 긋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선과 악의 잣대를 들이대며 살아갑니다. 선악의 잣대로 재고 선악에 걸리는 것은 세속의 가치이지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의 세계는 아닌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점을 잘 간파하고 “불교는 기독교와 달리 선악의 저 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선악의 이분법적인 사유를 넘어서는 것이 불교요, 특히 선불교의 세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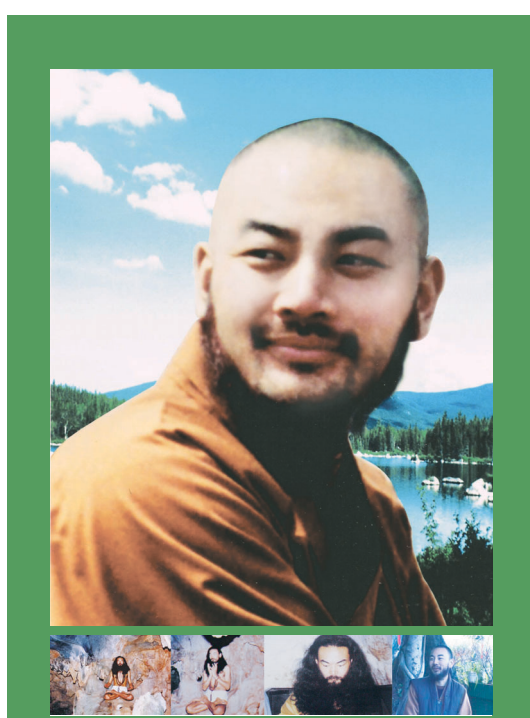
“이것이 수행의 길이다” 중국 동화선사 만행스님 수행서

6조 혜능, 람몽대사와의 기연!!

이론은 실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돌아갈 길을 단축시켜 걷게 할 뿐이다. 속세의 일에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문관 안에서도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장좌불와!! 생과사를 넘나든 혹독한 수행.



동화선사는 중국 광둥성 소관시 옹원현 동화산에 있다. 6세기 인도의 고승 지략삼장사에게서 오서서 영취사를 창건하였고, 7세기에 육조혜능대사에게서 수행 득도하고 영취사를 동화선사로 바꾸고 흥성시켰지만 15세기 이후로 쇠퇴하였다. 1997년에 만행스님이 지략선사와 혜능대사에게서 수련하였던 동굴에서 3년동안 폐관수련을 하였고, 드디어 불성의 근원을 증득하고 출관하여 동화선사를 복원 중창하였다. 만행스님은 동화선사를 선종의 도량으로 삼고, 대중들을 이끌어 해탈의 길을 전수하고자 서원하면서 “불교를 믿으려면 우선 나라를 사랑하고, 부처님공부를 하려면 먼저 사람노릇부터 잘하며, 도를 닦으려면 발심을 해야 한다.”는 동화사 가풍을 세웠다. 현재는 500명 이상주할 수 있는 거대 사찰이 되었고, 이들 모두가 참선수행 정진하고 있다.



7년을 동굴 속에서 장좌불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마음의 달이고 출관한 뒤에 동화사를 복원 중창하면서, 주간에 는 신도들과 함께 동화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행복기심, 선용기심, 기심주주 세권의 책으로 출간.



마음의 달 I·II ▶ 가격: 각권 1만원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항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 된 보살행 이야기.

행복기심 ▶ 가격: 18,000원
자기의 마음을 행복받는 것이다. 탐·진·치·만·의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음은 금방 광명해지고 환희로 가득 찰 것이다.

선용기심 ▶ 가격: 30,000원
자신의 마음을 착하고 좋게 쓰는 것이다. 마음을 선용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과 역운을 이겨나가고 슬피서 마음 상하고 병드는 일이 없어진다.

기심주주 ▶ 2016년 출간예정!!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요, 집착이 없어지면 뒤집혀 넘어지는 일이 없어지고 몸상에 빠지지 않으며 항상 각조를 지닐 수 있다.

행복기심, 선용기심, 기심주주 이 셋은 수행해서 득도하고 보살행을 하는 세 단계의 과정을 뜻하면서, 수행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이기도 합니다. 참선수행을 할 때 항상 이 세 마음을 받들면, 마음과 몸에서 곧바로 명월(明月)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